

'유전체 유전능력' 기반, 젖소 씨수소 선택

농진청, 맞춤형 개량 돕기 첫 공식 정보 제공

농촌진흥청이 젖소 농가의 맞춤형 개량을 돕기 위한 유전체 기반 씨수소 유전능력 정보를 공식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단위 젖소 유전체 유전능력평가 체계가 완비된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농가의 교배 전략 수립과 생산성 향상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농가에 제공되던 씨수소 정보는 대부분 혈통 평가 중심으로 이뤄져 실제 형질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유전체 분석을 반영한 유전능력 정보 도입으로, 농가가 더욱 정밀한 개량 목표에 맞춰 씨수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총 1,417두의 씨수소 대상으로, 2000년 이후 태



어난 개체 중 3세대 이상의 혈통 추적 가능성이 높고 형질별 유전능력 신뢰도가 50% 이상인 개체만을 엄선했다. 제공되는 정보는 △개체 정보 △혈통 분석 △형질별 유전능력 △유전자 정보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개체 정보에는 등록번호, 출생 정보, 국가, 정액 코드 등 기본 정보에 더해 유전체 분석치를 포함해 보다 정확한 개체 이해를 돕는다. 혈통 분석에서는 아비·어미 계통을 기반으로 완전한

세대 수, 평균 세대 수, 최대 추적 세대 등이 제시된다. 형질 정보에는 유량·유지방량·유단백량·체세포 수 등 생산성 관련 형질은 물론 체형을 평가하는 선형심사 항목 25개까지 총 29개의 형질에 대한 개체별 유전능력, 순위, 신뢰도가 포함된다. 특히 유전자 정보는 농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베타카제인 유전자형을 확인할 수 있어 최근 관심이 높은 A2유형 생산 계획에도 유리하며, FFI 결핍증 UMP 합성 효소 결핍 시트룰린혈증 소 백혈구 흡착 결핍증, 홀스타인 하플로타입(HH) 1·3·4 등 총 7종의 열성 질병 유전자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씨수소와 암소가 모두 보인자인 경우 약 25% 확률로 질병 송아지가 태어날 수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농가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 씨수소뿐 아

니라 수입 씨수소에 대해서도 유전체 기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액 수입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농가들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내려받아 정렬·검색 기능을 활용해 직관적인 교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 농가는 추가로 암소의 유전체 유전능력도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정밀한 맞춤형식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해당 정보는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와 한국종축개량협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병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팀 과장은 "유전체 유전능력을 기반으로 농가가 원하는 형질을 가진 암송아지를 전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내년에는 암소 유전체 유전능력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니 많은 농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이 미래세대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지역 인재 발굴 위한 한 걸음

전북농협·전주영성고, 건전한 식생활 정착 위한 협약 체결

전북농협이 미래세대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전북농협은 지난 10일 전주영성고등학교(교장 이장훈)에서 '미래인재 식생활 개선 및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영성고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정착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과 학생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MOU는 전북농협과

전주영성고가 수년간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해 협력해온 결실로, 앞으로 농·축협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채용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협약식 이후 전북농협은 수능을 앞둔 전주영성고 3학년 학생들을 위해 수능 만점 기원 참신타 나뭇 행사를 진행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동시에 '농심천심' 운동의 일환으로 1·2학년 학생들에게는 우리 지역 쌀로 만든 가래떡을 나누며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건전한 식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쳐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오상근 기자

농진청 농업과학관, '농생명 진로 탐색' 미니 페스타 개최

농촌진흥청이 미래 농업 분야의 가능성과 매력을 청소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오는 15일 농업과학관에서 '2025년 농생명 진로 미니 페스타'를 개최한다. '씨앗에서 꿈으로' 나의 농업 진로 탐색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농업의 가치와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 및 지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행사 핵심 프로그램인 이야기 공연(토코콘서트)에는 청년농부사관학교 연합 소속 농업 청년 5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청년 농부 나의 창농 일지'를 주제로 자신들의 창농 과정, 현실적인 어려움, 실패 극복 과정, 영농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예비 청년 농업인의 궁금증을 직접 해결하는 시간을 갖는다. 업체로부터 쌀, 딸기, 포도·복숭아, 표고버섯 등 다양한 작목으로 창농한 청년들의 경험담은 실제 영농에 뛰어들려는 청년들이 마주하는 도전과 기회를 생생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체험 공간도 눈길을 끈다. 농업 관련 직업과 진로를 소개하는 홍보 부스와 함께 '나의 디엔에이(DNA) 찾기' 진로 적성검사, 농업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오상근 기자

중기부,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

최대 5000만원 패키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본격화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에 따르면, 중기부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혁신바우처 수요기업 1차 모집을 진행하며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을 통합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제조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특성에 맞춘 맞춤형 역량강화를 위해 4가지 유형 △일반 △탄소중립 △중대재해예방 △재기전설팅으로 세분화했다. 각 유형별로 기업의 단계와 필요에 따라 컨설팅·기술지원·마케

팅 중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해 바우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652억 원(정부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38억 원 증액됐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근 3개년 평균 매출 규모에 따라 보조율이 40~85%까지 차등 적용된다. 2026년도 사업에서는 특히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 자치구를 제외한 84개 농어촌 지역을 균형발전 지표 및 낙후도에 따라 △특별지원지역(15%p) △우대지원지역(10%p) △일반 비수도권 지역(5%p)으로 구분해 국가 보조율을 차등 우대한다. 이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제조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신청 부담 완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기업 신청서 항목은 16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고, 바우처 플랫폼과 국세청·특허정보원 등 기관을 연계한 '원클릭 시스템'을 도입해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지식재산권·인증 정보 등의 제출 절차를 자동화했다. 또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정비하고, 공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해 등급별 인센티브·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첫 거래 고객 위한 차별화 혜택

'씨드모아 통장' · 'JB 1·2·3 정기예금' 특별금리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12월 31일까지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씨드모아 통장'과 'JB 1·2·3 정기예금'에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파킹통장인 '씨드모아 통장'은 일반 잔액에 대해 기본 연 2.0% 금리를 제공하며, 첫 거래 고객에게는 최대 연 0.8%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2.8%

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는 단기 유동자금을 보유한 고객에게 정기예금 수준의 경쟁력 있는 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벤트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마케팅 동의 시 0.1% △일별 최종 잔액 5천만 원 이상·3억 원 미만 시 0.4% △8억 원 이상 시 0.7%의 우대금리가 3개월간 추가 제공된다.

또한 정기예금 상품 'JB 1·2·3 정기예금'은 기본 연 2.45% 금리에 우대금리 최대 연 0.4%를 더해 12개월 기준 최고 연 2.85% 금리를 제공한다.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최근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1금융권 예금상품의 금리 경쟁력이 고객 자산 관리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는 안정적 운용을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금융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세대의 '춘향제 100년의 미래'

남원시, 2025 ICT 메이커톤 대회 참가자 모집

남원시가 전통문화의 상징인 춘향제를 미래 세대의 창의적 감성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하는 특별한 도전에 나선다. (재)전북테크노파크(전북TP)는 남원시 소프트웨어(SW) 지역특화 교육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인 '2025 ICT 메이커톤 대회'를 오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스위트호텔 남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메이커톤의 주제는 남원시가 자부심을 갖고 이어온 대표축제 춘향제의 100주년을 향한 미래 비전 제시다. 1981년 시작된 춘향제는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에 뿌리를 둔 전통축제로, 남원의 역사·문화·예술을 결합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 유산이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AI·ICT 기술을 활용해 오래된 전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기술 기반의 창의

적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둔다. 참가 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거나 남원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고등학교까지이다. 동일 학교급 학생 3~5명이 한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온라인 링크 및 이메일 접수를 통해 오는 11월 19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11월 29~30일 진행되는 사전교육에서 아두이노, 마이크로비트, 각종 센서 활용 등 기초 메이킹 기술을 익히고, 팀별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실습 과정을 거친다. 이후 본 대회에서는 사흘간의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최종 발표 및 심사 등 메이커톤 전 과정을 실제 프로젝트 형식으로 경험하게 된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